【자유교회 소식】

1.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자유교회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인터뷰 설교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신연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 오늘 친교 식사는 아버지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5. 아침 묵상이나 주일 설교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6. 개인 사정이나 병환으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700.00	
감사헌금:	$100.00	
주일헌금:	$0.00	
특별헌금:	$690.00	합계 $4,59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머/니/주/일/예/배

주일 오전 11시 **인도: 이진우 목사**

예배의 부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 양 팀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성도여 다함께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창호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마태복음 15:17-20**	인 도 자
설 교	**마음이 빚어낸 인생의 노래**	신연경 집사 이진우 목사
찬 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장인숙 성도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주 일 오 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주 일 오 전 11시
아 침 묵 상	월-금 오전 8:00
Youth Group	수 오후 7시(FFC Youth)

2026년 5월 10일 2026-19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253) 227-1775
JAYOOCHURCH.COM
JAYOOCH@GMAIL.COM

◘ 인터뷰 설교를 위한 질문 ◘

1. 집사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한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2. 성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탈리아 유학을 결심하면서 가졌던 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음악이 집사님의 신앙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신앙에 가장 큰 힘이 된 찬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결혼은 집사님의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었습니까? 이탈리아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본인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집사님은 아내, 엄마, 며느리, 딸이라는 여러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 이름 중 요즘 집사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이름은 무엇이며, 내가 사라진 것 같은 이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집사님의 친정어머니는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6. 집사님은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겪는 육체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7. 현재 집사님이 감당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싶거나 도망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8. 집사님 본인 생각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집사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집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억울한 오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집사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노후, 경제문제, 건강, 인격, 인간관계, 영적 성숙, 자존감 등등)
10. 집사님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나 사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1. 신앙공동체에서 집사님이 크게 상처받았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고, 의도하지 않게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까?
13. 젊을 때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지금은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소중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더 소중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4.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하게 하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5. 요즘 우리 교회는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그어진 여러 선과 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선이나 장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욥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7. 지금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래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8. 앞으로 살아갈 집사님의 인생이나 신앙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가치 또는 인격적 성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9.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집사님 자신에게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0. 다음 인터뷰 설교자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